

중국 NHTP와 신약 개발협력 추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중국 인허가·연구개발·마케팅 협력 합의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선진)은 중국과의 신약 개발협력 활성화와 중국 의약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한·중 신약개발 국제협력사업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2002년 9월16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1층 수련룸에서 회원사 대표이사, 연구소장, 개발담당임원, 마케팅담당임원, 대외협력담당임원 및 실무 업무책임자를 대상으로 「한·중 신약개발 국제협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한·중 신약 개발 및 중국시장 개척사업 추진개요, 중국국가건강과학기술산업기지(China National Health Technology Park) 소개 및 동기지 중심의 R&D 협력, NHTP 주요 지원사항(R&D, 자금지원, 인·허가 지원, 마케팅 지원 등), 중국 연구소, 공장 설립절차 및 의약품 인·허가제도 등을 소개했다.

국내 일부 제약기업들은 이미 중국과의 연구개발협력과 거대시장 진출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현지에 합작법인 설립 등을 통해 의약품 생산 및 마케팅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거대시장, 저렴한 물가수준, 풍부한 중국전통약물(TCM)에 대한 연구개발,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첨단기술산업 우대정책 등으로 중국시장에 많은 매력을 느끼고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시장경제와 관료적 통제가 병존하는 혼합시장구조 체제로 시장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성과 성간의 무역장벽이 매우 높아 외국기업의 독자 시장개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협력에 있어서도 풍부한 연구개발소스는 있으나 협력파트너 정보입수 등에 많은 애로가 있고 외국기업의 법인설립, 의약품임상시험, 시판허가 등 인허가 제도에 있어서 매우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NHTP와 2002년 4월23일 한·중 신약개발 및 시장개척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구체적인 실무협의를 위해 2002년 7월초 조합 관계자를 중국현지에 파견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중국 남단에 위치한 광둥성 중산시 소재 NHTP는 1994년 중국국가과학기술위원회, 광둥성 인민정부, 중산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중국의 유일한 국가기지로 중국정부와 인·허가 부처 등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의약품 등 임상시험, 시판허가 등에 따른 적극적인 허가지원과 중국전역에 걸친 의약품 등 마케팅 문제해결을 지원하며 중국에 산재한 각종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의 연구개발협력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한편,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10월15일 NHTP와 국내 의약산업계 및 바이오벤처업계를 대상으로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한·중 신약개발 국제협력 컨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기로 하고, 11월초에는 NHTP에 방문사절단을 구성·파견해 실질적인 국제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영진/화학저널 BioChem 담당기자>

<Chemical Daily News 2002/ 09/ 17>